



2026 단협(공통) 체결

건강검진 공가 1일로 확대, 충분한 회복! 부당한 위협에 강력 대응, 든든한 보호!



2026년 2월 2일, 문화방송 노사가 새로운 임금협약(공통)과 단체협약(공통)을 체결했다. 작년 9월 16일 본교섭 개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그동안 지난한 교섭 과정과 숙고의 시간이 이어졌다. 10여 회에 달하는 회사와의 실무 협의, 그리고 4개월 내내 이어진 16기 집행부의 마라톤 회의와 각 지부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거쳐 이번 임단협 체결이 이뤄졌다.

조합은 ‘공정방송은 방송 노동자의 핵심 노동조건’이라는 단협의 정신을 계승하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조합원을 제대로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단협 개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총 21개의 조항이 개정된 이번 새 단협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부에 공통 적용되며, 2029년 2월 1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노동조건 질적 강화 및 공정방송 수호

2026년 단체협약(공통) 체결 주요 개정 사항 안내

건강검진 유급 공가 0.5일→1일로 확대

현행 건강검진 공가는 0.5일에 불과해, 조합원들은 오전에 검진을 마치면 오후에 다시 출근해야 했다. 특히 수면 내시경을 시행한 경우 병원에서 “검사 당일 자가운전 및 중요업무를 피하라”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오후 내내 몽롱한 상태로 업무를 하기도 했다. 조합이 작년 5월 노사협의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이번 단협에서 건강검진 유급 공가를 1일로 확대하는 쾌거를 이끌어냈다.

개정 전

제60조 (공가)

6. 제71조에 따른 본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0.5일에 한함)

개정 후

6. 제71조에 따른 본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1일)

제25조의 3 (공정방송 조합원 보호)

공정방송 실현 조합원 적극 보호

공정방송을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한층 더 강화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의 변화로 언론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외부의 위협, 악의적 소송, 온라인상의 공격 등으로부터 회사가 조합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개정에서는 법적 분쟁과 법률 지원은 물론, 회사가 조합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전

사용자는 조합원이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 또는 그 결과 소송, 진정 등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법적 대응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개정 후

사용자는 조합원이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 또는 그 결과 소송, 진정 등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부당한 외부의 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성평등·일과 가정 양립 지원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최대 30일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해 합리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1일 2회 보장되던 유급 수유 시간을 4회로 대폭 확대**해 육아기 조합원의 수유와 돌봄 시간을 넉넉히 확보했다.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 조항도 관련법 개정에 발맞춰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했다.

개정 전

제104조 (유·사산 휴가)

가. 임신 16주 미만 :
10일(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30일까지)

개정 후

가. 임신 16주 미만 :
10일(**의사 소견에 따라 30일까지**)

일과 휴식의 균형 - 재충전 시간 확보

대휴를 ‘1일’ 단위로만 사용할 경우, 짧은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하루 전체를 쉴 수 없거나 야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번 단협에서는 **대휴를 ‘0.5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조합원들이 업무와 휴식의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사기념일이 주말이나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명시해 조합원들의 휴식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이번 단협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국 모든 지부에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마련됐다. 모든 조합원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적 약자 채용 노력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조직 내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 노력을 명문화했다. 회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단협에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합 활동 보장 & 경영 투명성

조합 활동 보장 - 불이익 방지

조합 전임자나 근로시간 면제자가 현업에 복귀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 없이 6개월 내에 다른 부서로 발령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전보를 당하지 않도록 대상 조합원을 보호하고, 조합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투명한 경영

이번 단협에서는 임원 임면 및 보직 변경 결과를 회사가 조합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경영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 사장 정책발표회의 개최 시기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경영 정책과 비전을 구성원들이 꼼꼼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2026 단협(공통) 신설 조항

제20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 대우)

4.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 원직 복귀 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 6월 이내에 재전보 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징계 절차 등)

3. 사용자는 징계 대상자인 조합원에게 인사위원회 4일전 (초일불산입)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69조 (작업환경 측정)

1. 사용자와 조합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사별 보충협약으로 정합니다.

⋮

※ 2026 단체협약 내용 전문은 조합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mbcunion.or.kr 🔍

2026 전국 민실위·성평등위 대회 개최

노동조합은 공정방송 실현과
사내 성평등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전국 민주방송실천위원회·성평등위원회
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6년 2월 9일(월) ~ 10일(화)

장소 상암 MBC (골든마우스홀/M라운지)

내용 외부 강사 초청 강연 및 자체 세미나

전국 민실위·성평등위간사 및 서울지부 민실위원·성평등위원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 임협(공통) 체결

일한 만큼 정당하게!!

평일 시간외실비, 약 9.1% 올렸다 (서울지부 기준)
전국 공통 시간당 1천 원 인상

이번 2025년 임금협약(공통)에서 조합은 평일 시간외실비를 1시간당 1천 원 정액 인상하는 안을 회사와 타결했다. 서울지부 기준으로는 시간당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돼 약 9.1%의 인상 효과가 있다. 이번 인상안은 2026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돼 2월 시간외실비 지급분부터 즉시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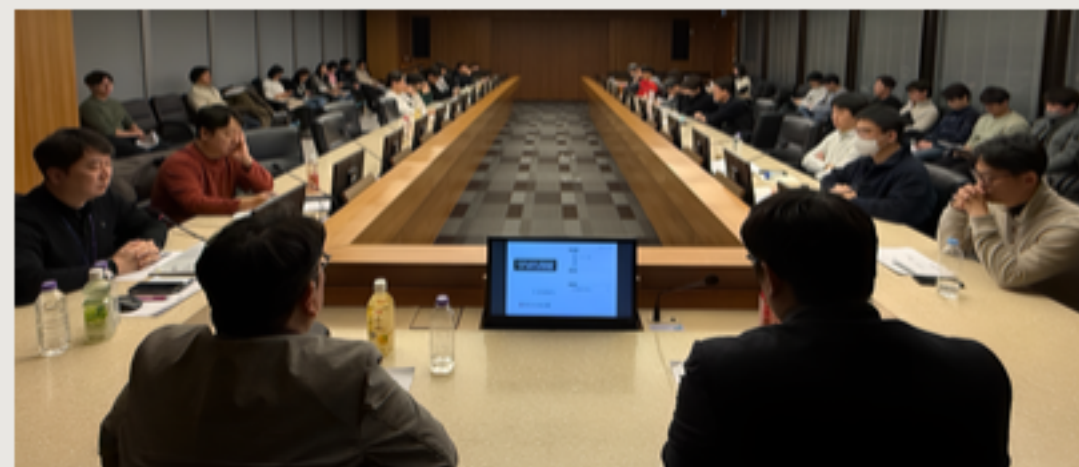
10명 중 7명 넘게 평일 연장근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 보상

이번 인상은 단순히 금액 증액을 넘어, 전국 모든 조합원에게 최소한의 보상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조합이 파악한 결과 서울지부의 경우 최근 한 달 기준 전체 1,777명의 구성원(계약직 포함, 임원 제외) 중 1,294명, 다시 말해 약 73%의 구성원이 시간외 연장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많은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노동에 대한 보상은 정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2026년 적용되는 전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지만 평일 시간외실비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지부는 서울지부 딱 1곳, 고작 680원 높았다. 전국 대다수 지부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시간당 9,000원에서 9,500원 수준이거나, 그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실비를 받고 있었다.

작년 9월 본교섭 개시 이후 4개월 간 이어진 협상 과정은 험난했다. 조합은 기본급 5.7% 인상과 시간외실비 단가 4천 원 인상, 정년 연장 논의라는 당초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사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사측은 지상파 방송 환경 악화와 광고 매출 급감 등으로 인해 전국 15개 지역사가 적자 상황이며, 서울은 특히 3백억 원에 가까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했다. 회사가 적자 상황인 해에는 기본급이 항상 동결돼 왔다는 임협 전례도 언급됐다.

그러나 조합은 경영 위기의 책임을 성실히 일한 조합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실무협의회와 실무교섭이 치열하게 오가며 해를 넘긴 끝에 이번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MBC본부 16기 4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조합은 협상 과정을 상세히 공유했다. 애초 계획보다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한편, 회사 경영 적자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조합이 추후 끝까지 따져 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40명의 대의원 중 34명이 참석해 상세한 질의 응답이 오갔으며, 임금협상 공통교섭 잠정 합의안은 반대 없이 의결됐다.

그러나 임금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전국 각 지부별 보충협약이 시작된다. 조합은 공통협약에서 세운 '일한 만큼 정당하게'라는 원칙이 각 지부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2025년 임금협약서]

계 목	2025년 임금 조정에 관한 합의 (공통협약)	
합의일시	2026년 2월 2일(월)	
합의사항	전국 문화방송(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MBC경남, 춘천문화방송, MBC충북,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MBC강원영동,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이하 '회사')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조합')는 2025년 임금 조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다 음- 1. 회사와 조합은 '시간외 실비에 관한 노사 합의'의 취지를 바탕으로 평일 연장 실비를 아래와 같이 인상합니다. - 인상액 : 1,000원/ 시간 - 인상시기 : 2026.1.1.부. 2. 본 협약서는 2026년 2월 2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대표 서명	회 사	조 합
	16개 문화방송 사장을 대리하여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안 행 준 서명: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 호 관 서명: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본부장 전 성 관 서명:

문화방송 노보 287호
QR 찍고

퀴즈 맞히면 선물 드려요!
(2월 12일 낮 12시까지 응모가능)



신임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조직국장
송정근

2012년 입사 / 보도
광주지부

시간 참 빠릅니다. 본부 조직국장으로 온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조직국장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잠 못 이루던 처음의 장면들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낯설었던 풍경이 익숙해진 만큼, 가열차게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고 공동의 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16기 집행부 남은 기간 동안 조직국장의 무게감을 고민했던 그 날 밤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한학수 시사교양국장 정책발표회

- 지상중계 -



방송 환경의 급격한 변화, 시사교양국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2025년 12월 24일

공정방송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시사교양국 국장 정책설명회가 지난해 12월 24일 상암MBC 경영센터 M라운지에서 열렸다. 조합과 시사교양국 평PD협의회에서 미리 취합한 질문들이 가감없이 한학수 시사교양국장 후보자에게 전달됐고, 시사교양국 구성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한 후보자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는 PD들의 자율성 보장 방안과 인력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정책설명회를 마친 뒤, 한 후보자는 시사교양국 재직인원의 과반 투표 참여와 투표 인원의 과반 동의를 얻어 12월 26일 임명 동의 투표를 통과했다. 이번 지상중계에서 신임 시사교양국장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핵심만 요약해 전한다.

"MBC는 공영방송이며, 공영성 콘텐츠 제작은 시사교양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공영성이란 권력 감시와 사회적 의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가 감할 수 있는 감동과 재미·정보로 구체화되는 모든 콘텐츠를 포함합니다. 방송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다양화, 시청 패턴의 변화, 수익성 압박의 심화는 시사교양국의 전면적인 전략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기존 '집토끼(핵심 시청자)'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산토끼(확장 시청자)'로 얼마나 넓게 확산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시사교양과 예능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입니다. 표현 가능한 영역과 장르가 더 넓어져야 합니다."



한학수 시사교양국장
모두발언

소통

"일상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장실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CP 회의의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평PD협의회와 모임을 정례화해 의견 듣겠습니다."

인사

"근무 형태 무관, 모든 구성원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PD 한 명 한 명이 야전 사령관이라 생각, 충분히 의견 수렴해 인사 내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시사교양 콘텐츠 역량, 시교국이 중심 가지 되어 모으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개발 TF 기능·방향 체계화

예산·편성

재원·편성 확보 위해 최선의 고공 플레이

SNS

유튜브 채널 7개, 시교국 '디지털룸'으로 확장·발전

각 부서별 목표

- 1팀 : 다큐멘터리의 핵심은 작가주의, 다큐의 본령을 살려 탄력적 대응
- 2팀 : <PD수첩> 탐사보도가 본질, '큰 칼' 제대로 쓸 것
- 3팀 : <실화탐사대> 아이템 폭 확장 & <심야괴담화> 지속성 고민
- 4팀 : 팟캐스트 기반 프로그램의 외연 확대, 레귤러/시즌제 개발 총력
- 5팀 : '외주협력팀' 이름 변경..아침/저녁 락 프로그램 전략 강화

한학수 시사교양국장 마무리 발언

"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전략과 정책은 부서장과 팀장을 통해 구현됩니다. 저는 국 전체의 비전을 찾고, 팀장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맡길 것입니다. 10년을 국장할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새로운 10년 계획, 지금 뼈대만 나와 있지만 여기에 살을 붙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비전과 타전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차가운 계절에, 아직 남아 있는 것

다시 겨울이 왔다. 차가운 공기가 스칠 때마다 그가 아른거린다. 이 글이 겨울 바람을 타고故 안윤석 선배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윤석 선배의 편집실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은 날이 많았다. 늘 바쁜 선배였다. 나는 그 불빛 옆에서 나의 일만 하면 된다고 믿었다. 그리 두텁지 않은 칸막이 너머 누군가 새벽이슬을 맞는 동안 나는 내 편집 화면만 들여다 보았었다.

연말, 평범했던 주말 아침 습관처럼 켜둔 TV 화면은 속보로 채워졌다. 하필 휴가를 그때 떠난 선배의 얼굴이 스쳤다. 사내 대화방은 분주해졌다. "윤석이도 저 비행기 안에 있는 것 같다"는 걱정이 터져나왔다.

그렇게 윤석 선배의 편집실 불빛이 꺼졌다. 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리고 그가 떠나버린 곳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지금에도,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선명하게 헤아리지 못한다. 내년에는 좀 편하고 싶다고 했던 선배는 고요 속에서 마침내 쉬고 있는 걸까?

윤석 선배를 앓아간 계절을 뒤덮었던 눈은 녹고, 계절은 다시 움직였다. 윤석 선배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혼자 감당하게 됐다. 모든 결정이 내 몫이 되었고, 모든 무게가 내 어깨에 있는 것만 같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편집실은 더 좁아졌다. 문득 깨달았다. 이 좁은 방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건, 언제나 옆방에 있던 누군가 때문이었다는 것을.

윤석 선배는 알고 있었나 보다. PD라는 이 일이 사람을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칸막이 너머를 두드렸던 것을. "요즘 별 일 없냐"는 그 성의없는 한 마디가 얼마나 큰 손길이었던지를.

제주항공 참사 1주기, 함께 기억합니다

공존을 꿈꾼 故안윤석 PD와 모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나는 편집실을 지날 때마다 아직 불 켜진 방을 찾곤 한다. 별것 아닌 적 말을 건넨다. 그리고 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선배가 내게 했던 것임을.

윤석 선배와 함께 퇴근하던 어느 날, 윤석 선배에게 <공존의 해법>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냥 우리는 모두 지구인이 아닐까?" 그랬다. 유작이 되어버린 <공존의 해법>은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 그저 지구에 사는 이웃으로 보려 했던 윤석 선배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또 눈이 내린다. 그가 완전히 떠나던 발인날 내리던 그 눈처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윤석 선배가 이제 쉬고 있기를 소망한다. 지구인 안윤석 PD가 남긴 그 온기를, 또다시 찾아온 이 차가운 계절 속에서 지켜내는 게 윤석 선배를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지.

2025년 12월 26일 쓰다.

선수연 (편제부문, 2024년 입사) / 목포지부

